

테스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드넓은 부안 들녘의 풍요한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곳 동문안 서문안 당산은 숙종 15년(1689)에 세워진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마을 장승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숫대와 함께 동제 복합문화로서 공존하고 있는 이곳 남녀장승의 모습은 매우 특이하다. 할아버지 장승은 높이 2.2m로 머리에 망건을 썼고, 다른 곳의 장승과 달리 상원주장군이라는 글귀가 몸통 앞이 아니라 왼쪽으로 새겨져 있다. 수염 끝이 왼쪽으로 구부러진 것으로 보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모습이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높이 2.1m 되는 할머니 장승의 몸에는 하원당장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두 장승의 얼굴은 두 볼이 축 처질 만큼 살이 통통하게 찌서, 잠귀를 겁주는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향해 흐물흐물 웃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서문안 당산은 중요민속자료 제 18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문안이니 서문안이니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안의 당산들은 예전 부안읍성의 각 문 안에 세워져 안쪽의 마을을 수호하던 부락신의 처소이다.

더불어, 부안 동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는 부안읍 동중리의 읍성 남문 자리에 있던 남문안 당산이 있다. 달리 짐대라고도 불리는데, 높이가 4.8m에 2단으로 구성되었다. 아랫부분에 시주자 2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윗부분 가운데쯤에는 거북이 네 마리가 돌을새김되어 있다.

매창시비

부안 군청 뒤 상소산에 자리 잡은 서림공원은 우거진 숲과 조출한 산책길로 부안 사람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공원 안 한쪽에 조선시대 이 지역 여류 문인인 이매창의 시비가 있다.

이화우 흘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다

아래쪽에 거문고를 새겨놓은 시비에 적힌 이 시에는 어느 가을날 그의 마음의 흐름이 고적하게 표현되어 있다.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상소산에 있다. 부안군청에서 서문안 당산 쪽으로 가다 보면 원불교 교당 바로 못미처 오른쪽으로 서림공원 가는 작은 길이 나온다. 공원으로 오르는 작은 길을 따라 300m쯤 올라가면 매창시비가 나온다. 승용차는 시비 앞까지 갈 수 있으나 대형버스는 부안군청 근처에 주차해야 한다.

매창은 조선 선조 6년(1573)에 부안현 아전인 이양종의 서녀로 태어났다. 매창(梅窓)은 호이고, 이름은 계유년에 태어났다고 하여 계생(桂生)이라 불리다가 자라면서 계화(桂花), 향금(香今)이라고도 했다. 자는 천향(天香)이다.

그는 중인 신분인 아전의 서녀로 태어나 기생이 되었으나 얼굴이 예쁘거나 교태가 흐르는 타입은 아니었고, 시와 글, 노래와 거문고 솜씨, 그윽한 성품으로 사람을 끌던 여성이었다. 당시 매창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그녀를 만나러 부안을 찾았다. 그와 사귀며 정을 나누던 사람 가운데는 천민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한 공로로 천민의 신분을 벗어난 시인 유희경이 있었고 또 허균이 있었다. 자주 부안을 찾던 허균은 아예 부안에 눌러 살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이곳에서 『홍길동전』을 짓기도 했다.

매창은 사는 동안 사랑과 외로움, 헤어진 입에 대한 그리움 등 자기 삶에서 스며나오는 정서를 풀어낸 수백 편의 시를 지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이나 외로움, 한탄은 숨결 가파른 절규가 아니라 먼 곳에 눈길을 둔 사람의 가느다란 읊조림이다. 그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과 정을 나누지만 그 이상의 욕심은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체념과 달관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개성의 황진이와 함께 조선 명기의 쌍벽을 이루던 그도 광해군 2년



매창의 묘.
황진이와 함께 조선 명기의 쌍벽을 이루는 매창의 묘. 한 때의 명기였던 그의 무덤이 쓸쓸하다.

(1610), 나이 사십을 다 못 채우고 가난과 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독수공방 외로이 병에 찌든 이 몸
 굶고 떨며 사십 년 세월 길게도 살았네
 묻도니 사람살이가 얼마나 되는가
 어느 날도 울지 않은 적 없네

그가 죽은 지 60여년이 지난 후, 부안의 아전들이 여기저기서 그의 시들을 모았고 그가 생전에 자주 찾아 마음을 다스리곤 하던 개암사에서 그것을 책으로 엮어주었다. 지금은 매창의 시 가운데 61수가 전해지며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그의 묘지가 있다.

오늘 부안을 찾는 사람들은 매창의 시비 앞에서, 부안의 바람결을 운택하게 하는 것은 채석강만이 아님을 알게 된다.

내소사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혜구두타(惠丘頭陀)가 소래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창간 당시에는 대소래사와 소소래사가 있었는데 지금의 내소사는 예전의 소소래사라고 한다. 고려 때의 사적은 전해지지 않고, 조선 인조 11년(1633)에 청민선사가 중건했고 고종 때 관해선사가 중건했다고 전해진다. 예전에는 선계사, 실상사, 청림사와 함께 변산의 4대 명찰로 꼽혔으나 다른 절들은 전란통에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내소사만이 남아 있다.

소래사였던 이름이 언제부터 내소사로 바뀌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나당연합 때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 절에 들러 시주했기 때문에 소래사가 내소사로 되었다는 말이 있지만 근거로 삼을 만한 기록은 없다. 성종 17년(1486)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에도 소래사라고 적혀 있으므로 내소사로 된 것은 그 후의 일일 것이다.

일주문에 들어서면 천왕문에 이르기까지 600m 가량의 전나무 숲길로 이어진다. 잘 자라 터널을 이룬 전나무 아래로는 드문드문 산죽이 깔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에 있다. 30번 국도를 따라 격포를 지나 변산반도를 한 바퀴 돌면 석포리가 나온다.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23번 국도를 따라 고창 쪽으로 15.2km 정도 가면 보안사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난 30번 국도를 따라 10km 가량 가도 역시 석포리다. 석포리 진서능협 특산물 판매장 앞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2km 더 들어가면 내소사 입구이다.



려 더욱 청신하다. 침엽수 특유의 맑은 향을 맡으며 이 길을 걷는 동안 웬만큼 속이 시끄러운 사람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질 듯하다. 일주문에서 경내에 이르는 거리는 마음의 먼지를 떨고 부처의 세계로 가는 마음을 가다듬는 데 필요한 만큼이라고들 하는데, 이 길이야말로 그 말을 실감하게 한다. 천왕문 바로 앞에는 잠시 단풍길이 이어진다. 단풍나무가 시작되는 곳에서 길은 왼쪽으로 조금 꺾이고, 되돌아보면 일주문도 전나무 숲길에서 약간 비스듬히 앉았다. 이 작은 꺾임들이 있음으로 해서 길은 몇 배나 그윽해졌다. 전나무길을 거의 다 벗어난 곳 왼쪽 기슭에는 부도전이 있다.

사람들은 안의 것과 밖의 것을 가르고 밖의 것을 밀쳐내려고 담을 쌓곤 하지만, 내소사 천왕문 좌우의 야트막한 돌담은 단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끌어안음을 느끼게 한다. 절 안은 야트막한 축대와 계단이 몇 차례 거듭되면서 조금씩 높아진다. 두번째 계단을 올라서면 만나게 되는 수령 950년 된 나무는 입암마을의 할아버지 당산으로, 일주문 바로 밖에 선 할머니 당산나무와 한 짝을 이룬다. 임진왜란 이후 불교가

내소사 전경

구석구석 정성들인 손길이 배어 있는 고색창연하면서도 사랑스런 절이다.

중흥하면서 칠성가, 산신각 등 민간신앙들이 절 안으로 끌어들여지지만 당산나무까지 들어온 것은 매우 드문 예다. 해마다 정월 보름에는 할머니 당산나무 앞에서 내소사 스님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독경을 하며 입암마을 사람들과 함께 당산제를 지낸다. 해방 전까지는 줄다리기를 하고 그 줄로 당산나무에 옷을 입히기도 했으나 지금은 인줄만 쳐놓고 제를 지낸다.